



# 독서동아리 모임

대학에서 세상까지, 책으로 건너는 그들만의 공동체

대학에 입학했지만 공부는 뒷전이고 놀기만 하는 대학생들 일러 한때 '먹고 대학생' 이라고 했다. 대학생 되기를 '버르며' 오로지 입시준비에 매진케 하는 우리 교육이 낳은 결과다. 그럼에도 캠퍼스 한켠에선 독서를 통한 '그들만의 지식단체' 를 만들어 지식과 지성을 공유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가톨릭대학교 법학대학 독서동아리 **편지** '책 편' 자에 '지혜 지' 자로 책(편)에서 얻은 지혜(지)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편지역할을 하자는 뜻의 독서동아리 '편지' 는 올해로 결성 3주년째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시사적인 안목과 법학도로서 사람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책 선정 작업은 월별로 1년치 카테고리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책을 회원들로부터 추천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단순히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수준을 넘어 책 한 권을 두고 각기 다른 감상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일정한 날짜를 정해 놓지 않지만 모임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이루어진다. 장소는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할 만한 찻집, 음식점 등에 모여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책 읽기' 를 시도한다. 현재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영 씨(25, 법학과 3년)는 "법학대학 독서동아리지만 책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며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많은 참여로 앞으로도 책과 사람, 사회를 가까이하는 독서동아리로 커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립대학교 독서토론 클럽 **POB**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는 'POB' 의 정기모임이 있는 날이다. 주말 아침시간이라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할 듯해도 모임이 발족된 200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POB는 People On the Border로 '경계에 선 자들' 이란 뜻이다. '경계' 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구분을 뜻하는데 이는 무기력한 대학생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현실과 이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양자 모두를 추구하는 균형 감각을 갖춘 대학생이 되고자 하는 뜻이다.

토론의 대상이 되는 책은 일주일을 주기로 사회과학/인문과학/문학/자연과학·예술의 4가지 카테고리에 따라 회원들의 추천과 다수결로 선정한다. 회원들은 모임을 통해 폭넓은 지식습득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가질 수 있고 여럿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견허한 경청태도를 배울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대 독서토론 동아리 **이화차돌** '이화차돌'은 10명 이하의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대 독서토론 동아리다. 운영자인 김보경씨(22, 정치외교학과 4년)는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하는 지식, 사고, 교양 등에 관한 토론으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 단과대 동아리다보니 10명 이하의 적은 인원이지만 오히려 집약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생으로서 '이 정도는 읽어야지' 하는 수준의 고전과 신간을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선정한다. 특히 방학 때에는 시간과 생각이 충분히 필요한 철학, 역사, 여성 등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공부도 시도한다.

'이화차돌'은 대학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독서모임에 관해 '수박 겉핥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 얼마 안 되는 지식을 공유하지만 이런 모임을 통해서라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대학'의 모습을 찾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씨는 "여전히 학생들은 '독서 토론 동아리' 라는 타이틀에 이질감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읽기와 토론을 지향하는 '이화차돌'은 의미 있는 독서토론 동아리로서의 발전을 지속한다는 다짐이다.

전남대학교 독서소모임 **다섯 수레의 책** 전남대학교 독서소모임 '다섯 수레의 책'은 같은 대학, 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2000학번 학생들이 만든 모임이다. 2000년에 결성됐으니 올해로 5년째인 연륜 깊은 모임이다. 인문학, 경영학, 공학 등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진 7명의 회원이 '함께 책을 읽어보자'는 의견에 동의하며 시작했다.

모임은 일주일 전에 함께 선정한 책을 개인적으로 읽고 감상문을 작성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독서를 하면서 토론 주제에 대한 생각도 정리해야 한다. 이 중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발표문은 홈페이지에 책표지와 함께 게재해 모임의 구성원은 물론,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개방한다. 또 하나의 '토론의 장'이 이어지는 셈이다.

'다섯 수레의 책'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가급적 방대한 영역을 두루 읽는다. 매주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오랜 시간 모임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다. 현재 '다섯 수레의 책'은 대학원 진학과 어학연수 등으로 빠진 사람을 제외하고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제2회 창비와 함께하는 대학생 이벤트  
"책하고 친구하자!"

**책 지원해드립니다. 마음껏 읽으세요**

출판사 창비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책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연다. '책하고 친구하자!'는 이름으로 올해로 2회째인 이 행사는 대학 동아리·학회·소모임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들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파악하고 도서를 지원하기 위해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작년 봄, 첫회를 실시했다.

창비의 이런 기획은 '책을 읽지 않는 사회'에서 기초했다. 인문사회출판부 김경태 씨는 "왜 책을 읽지 않는가 생각해 보니 주위에 책이 없어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본 행사는 대학생들에게 책이 친근한 매체라는 것을 알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밝힌다.

지원지는 창비 홈페이지에 기재된 양식을 참고해 단체소개서와 세미나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임활동, 다른 학생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계획서를 작성한 팀에 한해 으뜸상 5팀과 버금상 15팀을 선정하고 각각 30만 원과 15만 원 한도의 창비책 등을 상품으로 제공한다.

**기간** 3월 14일(월)부터 4월 15일(금)까지

**발표** 4월 22일(금) 창비 홈페이지 [www.changbi.com](http://www.changbi.com)

**문의** 창비 인문사회출판부

김경태 031-955-3358 | [human@changbi.com](mailto:human@changbi.com)

취재 홍이현 기자